

# 코로나에 뜬 골프...스크린골프장·골프 의류 매출 날다

### 광주 스크린골프장 사업자 3년새 31.9% 급증...3월 기준 5600명 집계 호남권 골프장 매출 5550억원 넘어...전년 4593억원보다 20% 상승 광주신세계, 용품·의류 등 매출 40% 급증...20~30대 유입에 매출 증대

코로나19 사태로 골프 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광주지역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역 골프장들은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덩달아 골프복과 골프용품 찾는 발길도 늘면서 유통업계의 매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국제통계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실내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수는 지난 3월 기준 5600명으로 파악됐다. 스크린골프장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3월 4245명인던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2019년 4648명으로 9.5%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5007명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는 전년 대비 11.8% 늘어나는 등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3년 전보다 무려 31.9%(1355명) 급증했다.

스크린골프장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오히려 호황을 맞은 분위기다. PC방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소수의 지인과 한 공간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적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역시 코로나19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 회원제·대중골프장 매출액 합계액(캐디피 제외)은 5550억원으로, 전년(4593억원)보다 20.8%(957억원) 급증했다. 5년 전인 지난 2015년 매출액(3650억원)에 비해서는 52.1%(1900억원) 오른 것이다. 골프 수요 증가와 함께 각 골프장들이 이용금액을 올린 영향도 매출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해외 여행길이 막힌 소비가 국내 골프업계로 몰리면서 광주 주요 백화점의 골프 상품 매출은 올 들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롯데몰 여수점에 새로 입점한 골프용품 매장. <롯데쇼핑 제공>

골프의 인기와 관련 산업의 호황은 2030 세대의 유입과 코로나19가 큰 역할을 했다. KB경영연구소의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골프존 이용

객을 분석한 결과 3년 이하 신규 골프 입문자 중 20~40대가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퇴근 뒤 여가시간이 늘

었고,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가 골프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또 골프가 야외 운동이라는 인식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골퍼들이 국내로 눈을 돌린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골프 관련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의 골프 용품과 의류 등 관련 제품 매출 신장률(1월-6월6일 기준)은 2019년 2%에서 지난해 8%로 오른 뒤 올해는 무려 40%로 경종 뛰었다. 그중에서도 골프 의류가 지난해 4% 신장율에서 올해는 42%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골프 관련 매출 신장률 지난해 12.2%에서 올해 1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업무나 지인들과의 친목을 위해 골프를 즐기던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소비자들은 골프 의류와 악세서리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며 "젊은층의 유입으로 골프 브랜드들도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을 선보이는 추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가성비 甲' 골프장 10곳 중 7곳 호남에 있다

### 사우스링스영암CC 국내 가장 저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은 영암에 있는 사우스링스영암CC로 나타났다. 또 가성비가 높은 골프장 전국 '탑(TOP) 10'에 호남권 골프장이 7곳이나 포함됐다.

7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사우스링스영암CC(대중 45홀)의 입장료와 카트비, 캐디피 등 총 1인당 이용료는 지난 5월 기준 주중 11만9000원, 토요일 14만5000원으로 국내 골프장중 가장 저렴한 것

로 조사됐다. 전술 노캐디제로 운영되는 사우스링스영암CC는 2인승 승용카트를 운영하는데 1인당 카트비는 1만원에 불과하다.

가성비 높은 골프장 2위에 오른 골프장은 무안에 있는 무안CC(대중 54홀)로 주중 이용료가 13만3000원, 토요일 16만8000원이었다. 다만 팀당 카트비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토요일 이용료는 지난해보다 1만3000원 올랐다.

또 무안클린밸리CC(대중 18홀)는 1인당 이용료가 주중 14만3000원(토요일 17만8000원)으로 4위, 순천부영CC는 주중 12만8000원(토요일 18

만3000원)으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7위에는 주중 14만3000원(토요일 18만3000원)을 받는 군산CC(부안코스)가, 8위는 주중 14만5000원(토요일 18만5000원)인 여수 씨티파크CC가 기록했다. 남원상록CC도 주중 15만 원(주말19만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 이용료가 급등하면서 골프비용이 저렴하고 코스가 좋은 골프장을 선호하는 추세다"며 "노캐디 등 경제적 부담이 적은 골프장도 최근 각광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도시가스 보급률 4년 연속 1위

### 99.7%·63만1681가구 보급

### 해양에너지, 5년간 1670억원 투자

(주)해양에너지는 광주 도시가스 보급률이 4년 연속 17개 시도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시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권역 거주세대 63만3582가구 가운데 공급세대는 63만1681가구를 나타내면서 보급률은 99.7%로 집계됐다.

광주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

았고,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에 이어 서울(98.0%), 대구(97.3%), 울산(95.9%), 부산(95.5%), 대전(95.3%), 인천(9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보급률은 99.3%(2017년)→99.9%(2018년)→100.2%(2019년)→99.7%(2020년) 등으로 4년 연속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해양에너지는 최근 5년 동안 1670억원을 들여 연 평균 90~100km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투자를 집행하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총 450억원의 투자예산을 책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5월 최고 낙찰가 658억원 '한국실리콘 여수공장'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전국 최고 낙찰가 물건에 여수시 화치동 소재 한국실리콘 여수공장이 이름을 올렸다.

7일 지지옥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 화치동 소재 공장(5만4047.2㎡)은 감정가 1561억4897만원의 42%인 658억원에 낙찰됐다. 해당 공장은 폴리 실리콘을 제조하는 한국실리콘의 여수 공장으로, 낙찰자는 금호피앤비화학이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이 공장은 지난해 3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2월 까지 내리 4차례 유찰된 바 있다.

또 강진의 한 전(田)은 최다 응찰자 물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강진군 마량리 소재 939㎡ 규모의

전은 총 57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울산 범서읍 입암리 소재 담(771㎡)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응찰자가 많은 물건이었다.

해당 전은 감정가(1502만원)의 5배에 육박하는 7112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곳이 없었던 4월과 달리 지난달 광주의 낙찰가율은 103.2%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5월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곳은 광주가 유일했으며, 특히 광주의 토지 낙찰가율은 무려 131.9%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비트코인 4100만원대 횡보

### 이더리움 319만원대 거래

7일 오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비트코인이 4100만원대에 횡보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 현재 1비트코인은 4171만9000원이다. 24시간 전보다 0.44% 내렸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4천169만3000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나란히 상승하면서 319만원대에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따라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 한 달 만에 최고치... "3250선 뚫었다"

코스피가 7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04포인트(0.37%) 오른 3252.1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10일에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3249.30을 약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 개인이 각각 1184억원, 655억원을 순매수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기관 중 금융투자가 1283억원을, 연기금 등이 26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지난 3거래일간 순매수를 지속한 외국인도 이날 1874억원 매도 우위였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17억1534만주, 거래대금은 18조8491억원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2포인트(0.17%) 내

린 985.86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9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02억원, 28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52.12 (+12.0)
↓ 코스닥	985.86 (-1.72)
↓ 금리(국고채 3년)	1.201 (-0.019)
↓ 환율(USD)	1112.90 (-3.60)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유보통 | AIG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